



별별 체험 중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지 꼬박 10년이 되어간다. 미국에서 한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유아용품 판매했었는데 온라인 판매이다 보니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였다. 그때는 다른 SNS 광고가 활발하지 않을 때라 블로그 마케팅이 단연 최고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블로그 마케팅 비중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다.

사업의 도구로 시작한 블로그였지만 소통하는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한국에 오면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한동안 찾지 않았던 블로그 공간에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식당, 호텔, 병원, 좋은 제품 등등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기를 올렸는데 그럭저럭 반응이 괜찮았다.

그러다가 올 1월, 어차피 올리는 리뷰 게시글인데 차라리 협찬을 받아보자 싶어서 업체와 블로거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체험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정이 잘 되지 않았다. 이 바닥도 나름 경력자를 우대하는지 새롭게 신청하는 블로거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두 개 운 좋게 선정이 되면 뭉뚱하게 기뻐하며 '오늘은 내가 이 업체의 마케팅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리뷰했다. 추후 업체 관계자가 내 후기를 봤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게 해주고 싶었다. 나의 글이 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다. 원래도 사진 찍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리뷰를 작성해왔으니 무료 협찬과 약간의 보수까지 생기는 블로거 체험은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리뷰 블로거로서 제법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지 체험 신청을 하면 곧잘 선정이 되었다. 식당, 미용실, 스킨케어, 뷰티숍, 헬스클럽, 태닝숍, 골프 연습장, 건강식품, 식품, 반찬, 음료수, 술, 건강보조제, 캠핑용품, 반려동물 용품부터 CCTV 설치, 자동차 선팅, 아이돌 온라인 수업과 미술 방문 수업, 심리 상담, 다이어트 관리 등등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도 상상을 초월했다. 덕분에 주 1회 스킨케어나 마사지 관리를 받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고 나를 비롯해 내 주변 사람들도 미용실, 뷰티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양한 플랫폼에 체험 신청을 했더니 많이 선정될 때는 하루에도 서너 개씩 체험을 해야만 마감일 전까지 리뷰 작성을 마칠 수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약 150개의 체험과 후기를 작성하였으니 월 50개씩 한 셈이고 금액으로 따지니 대략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무슨 체험 가?" 하고 물을 정도로 거의 풀타임 수준으로 체험을 하고 후기를 썼다. 하지만 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니 슬슬 일상의 스케줄도 꼬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방해가 되고 있어서 조정을 잘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생활비와 외식비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일부 체험의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나 추가 경비도 발생했으니 정확한 득과 실은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체험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있다. 내 돈으로 하기 망설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협찬으로 체험하며 다채로운 경험은 물론 추억까지 덤으로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공짜는 아니다. 업체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블로거는 사진과 콘텐츠가 있는 리뷰로 서포트한다. 요즘 고객들은 무엇이든 검색해서 찾아보고 연구한 후 결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체험을 통한 광고성 리뷰라 하더라도 리뷰의 효과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솔직히 어떤 업체든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전문 포토그래퍼가 찍은 훌륭한 사진과 눈에 속속 들어오는 상세 설명이 잘 나와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보다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 보통 사람들의 느낌과 후기를 공유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 같은 리뷰 블로거가 바빠지는 세상이다.

블로거로 거듭나려는지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또 휴대폰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다. 누워서, 앉아서, 대기 중에, 눈뜨고 눈감을 때까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동경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평생 처음으로 쉼 네일 아트 체험을 하고 왔는데 2시간 동안 별서는 기분이었지만 알록달록 귀여운 손톱을 보니 한결 기분이 좋다. 이 기분 그대로 후기도 써야겠다. 기왕 시작한 거 이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플러튼 단독 주택 \$ 675천

방 4 화 2 1407 sqft
1974년생, 게이트 단지, 일층에 방과 목욕탕, 낮은 관리비, 인기많은 지역, 조용한 단지, 오픈 구조



플러튼 타운 하우스 \$ 61만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때를 서두르세요.
방 3, 화 1.5, 약 1200sqft 한인분들 선호 하는 좋은 동네, 초중고 학군 무지 좋은 동네 첫집으로 완성 맞춤, 렌트도 아주 잘나가는 단지, 쾌적한 환경, 거라지 두개, 수영장, 스파



플러튼 단층 하우스 \$ 84만

방 3 화 2 약 1300sqft
대지 6541 sqft
학군좋은 동네, 최신 리모델링, 교통 편한곳, 오픈 구조



플러튼 타운홈 \$ 595천

방 2 화 2 약 1200sqft
일층, 거라지 두개, 밝고 환한 집, 싱글홈 같은 느낌의 타운홈 놓치지 마세요



플러튼 타운홈 \$ 59만

방 3 화 2.5 약 1600 sqft
브레아물 가깝고, CSUF 가까운 렌트용으로 아주 좋은 매물, 첫집 장만으로도 아주 최적, 수영장, 많은 분들 선호 하는 지역



플러튼 타운 홈 \$ 75만

방 2 화 2.5 1400 SQFT
거라지 두개 초중고 도보 거리, 아메리치 하이츠 도보거리, 코너 유닛 밝은 집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